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



- ✓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초·중·고(고3 제외)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과정) 제공합니다.
- ✓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추가개발 등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 소그룹·1:1 대면지도, 협력수업 등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지원합니다.
- ✓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위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 특수학교(급) 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행복한 교육

vol.458 2020 SEPTEMBER

18 꿈이 영그는 현장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교, 틈을 깬 공간이 되다

34 정책을 말하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소규모 시설에 영양사 지원

38 이슈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청렴한 교육부가 만듭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학기 교육분야 대응 안내서

밀집도를 최소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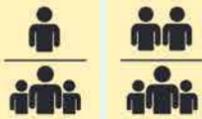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3 학생 제외 가능

수도권 외 지역

유·초·중학교 고등학교



유·초·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 밀집도 유지

9월 11일까지 적용

학교 방역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 ✓ 학교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 예방을 생활화해요.


보건용 마스크
비차 활용


손소독제, 손세정제
비차 활용


책상 등
소독 생활화

- ✓ 유·초·중·고 학생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해요.
- ✓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을
유치원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요.

원격수업을 위해 지원해요

- ✓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요.
- 1학기 희망학생 무상 대여 외 25.3만대 여유분 확보
- ✓ 원격수업 플랫폼을 많은 이용자
수용이 가능하도록 증설해요.
- ✓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해요.
- EBS, e학습터, 위두랑, 디지털교과서,
사이언스올, 엔트리, 커리어넷, 에듀에이블

유치원·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해요.
원격수업 전환 + 등원 제한 → 정상 지원
- ✓ 조기 하원 2시간 이내로 조정 가능해요.


기존
1시간 이내 조정




한시적용
2시간 이내 조정

- ✓ (수도권) 원격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요.

운영 시간 | 09-19시 운영
실당 10명 내외 유지

급식 제공 | 중식
지속적 제공

Contents

04

특별기획

코로나19 재확산, 교육계 한발 빠르게 대응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였다. 학교방역을 위해 그동안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2단계에 맞춰 학교 밀집도 등 세부 후속 조치를 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3단계 수준의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학교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학습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34

정책을 말하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지난 6월경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영유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복지부, 식약처)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을 하였으며, 현행 급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영양사 없는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50인 미만의 시설에서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된다. 또한, 식재료 검수단계부터 조리·배식까지 모든 과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 수준으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Contents



Cover story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는 8월 26일 전국 교육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지역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원 방역, 돌봄, 기초학력 지원 등을 협의하였다.

특별기획

04 코로나19 재확산, 교육계 한발 빠르게 대응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교방역·원격수업 인프라·돌봄서비스 촘촘하게 챙긴다
‘블렌디드 러닝·평가기록’ 학교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여기서 확인하세요

정책

33 더 넓고 깊은 정책

소규모 시설에 영양사 지원·보존식 보관의무 강화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청렴한 교육부가 만듭니다!
전라남도교육청_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18 꿈이 영그는 현장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교, 틈을 깬 공간이 되다

22 삶과 교육

울산 전문직 학습공동체_다들영어
‘듣는 영어’로 학교 영어교육 새바람 일으켜

26 찰칵

휴식

28 명예기자 리포트

구미여고,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 외

34 정책을 말하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38 이슈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청렴한 교육부가 만듭니다!

43 이슈②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청렴의 생활화 필요

44 이슈③

교육부 이달의 우수부서(직원) 선정,
신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

46 교육자치시대

전라남도교육청_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49 이달의 교육뉴스

정부,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나선다 외

52 진로탐색

에너지 신산업 분야

56 교육 소확행

자연은 위대한 교과서

58 이야기 인문학

불안의 철학

60 교사상담실

교실에서 감정조절이 힘들어요

62 똑딱똑딱! 자료실

원격수업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

64 통계로 읽는 교육

2020 교육기본통계_유·초·중등 교육통계

발행일 2020년 9월 10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신문규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임용빈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박형민
편집장 이순이
기자 양지선
사진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춘
웹진 www.happyedu.moe.go.kr
제보 eduzine21@gmail.com
전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교육계 한발 빠르게 대응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였다. 학교방역을 위해 그동안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온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2단계에 맞춰 학교 밀집도 등 세부 후속 조치를 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3단계 수준의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학교방역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학습결손을 줄이기 위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05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 08 학교방역·원격수업 인프라·돌봄서비스 촘촘하게 챙긴다
- 12 ‘블렌디드 러닝·평가기록’ 학교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 16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여기서 확인하세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 지역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는 조사의 비협조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학교도 이 위험 상황에 예외는 아닙니다. 8월 이후 폭증된 집단감염의 무서운 확산 추세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과 교직원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193명의 학생·교직원이 확진되었고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우리 학교와 교육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중대본,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강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학습결손 최소화와 학생 보호를 위해 등교수업, 등교 활동이 꼭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면 등교 시에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6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감염 증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 해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 전면 전환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습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돌봄 필요한 가정 대상, 돌봄서비스(중식) 제공

먼저,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중식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토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원격수업 전환에도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운영되도록 인프라 지원과 학습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를 1학기 전면 온라인 개학 당시의 수준인 학생 3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증설을 완료했고, 각 플랫폼 담당 기관에 현장상황실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각 기관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여 혹시 모를 플랫폼 오류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각 플랫폼 현장상황실 구축 신속 대응해 나간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수업 콘텐츠 추가 개발 등 원활한 수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중·고 교과,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를 12학기 말까지 연장하여 누리집에 탑재하고,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을 위한 EBS 방송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BS, 검정출판사와 협력하여 1학기에 개발하지 않았던 교과 콘텐츠 13종을 추가로 개발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등에 탑재하겠습니다.

1학기과 마찬가지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12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 부족 등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과 가정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토록 하고, 시도의 다양한 기초학력 지도 프로그램과 학습콘텐츠를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1:1 또는 소그룹 등으로 등교하여 대면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방치 대비, 지자체·경찰당국과 협조체제 구축

또한, 보다 각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사운영 일정 조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전환으로 면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경찰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혹시 모를 아동학대나 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한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환 결정이 현재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0.8.25.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코로나19 대응 2학기 준비상황 점검

학교방역·원격수업 인프라·돌봄서비스 촘촘하게 챙긴다

글 이순이 편집장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증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원격수업)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8.16)됨에 따라,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8.19)를 통해 학교 밀집도 등 교육 분야 세부 후속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이후 부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교육부대책반 회의를 긴급 개최(8.21)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 각지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8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 24일 조희연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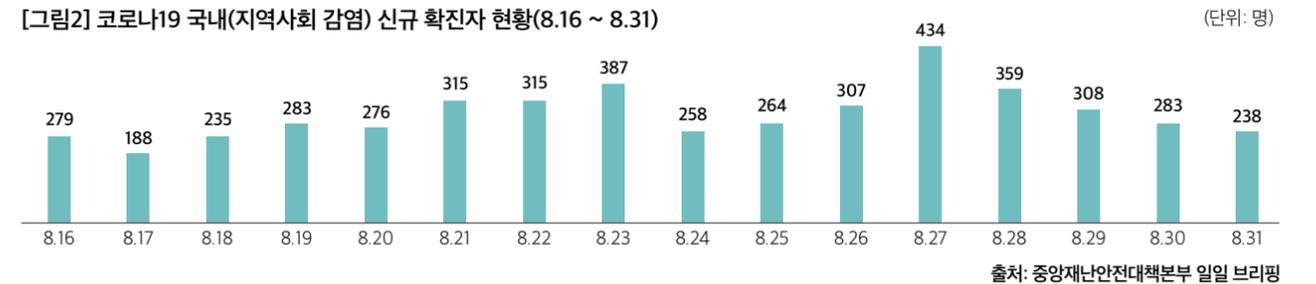
-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인프라 증설, 225만 명 이용 가능
- 스마트기기 25만 대 여유분 확보, 모바일 데이터 연말까지 지원
- 등교수업 24시간 상황실 지속 운영 및 교육부 콜센터 설치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등과 만나 학교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학교방역과 돌봄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이후 최종 논의를 거쳐 8월 26일부터 오는 9월 11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중심으로 3단계(원격수업) 선제적 조치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선 코로나19 상황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격일

[그림2] 코로나19 국내(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 현황(8.16 ~ 8.31)



[그림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상황

8.15
중대본
: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주간, 8.16~)

8.21
중대본
: 서울지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8.21~8.30)
: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요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

8.22
중대본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주간, 8.23~)

8.25
교육부
: 수도권 유·초·중·고(1~2) 원격수업 전환 결정(8.26~9.11)
· 고3 제외,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결정

8.19
교육부
: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학교 밀집도 1/3(↓), 고교 밀집도 2/3 유지
·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운영

교육부
: 부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교육부대책반 회의 긴급 개최
· 학생·교직원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준비상황 등 점검
· 원격수업 인프라, 돌봄서비스 등 대응체계 재확인

교육부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등교수업추진단) 개최
· 집단감염 발생 지역(시·군·구)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 수도권 외 지역 유·초·중학교 밀집도 1/3(↓), 고교 밀집도 2/3 유지
· 대형학원 전수점검, 중·소형학원 집중 점검

8.24
교육부
: 수도권 학교방역 점검회의 개최(부총리, 서울·경기·인천교육감,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참석)
· 2학기 방역, 돌봄, 원격학습 등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유지

8.28
중대본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8.30~9.6)
·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

(격주)등교, 분반제 운영 등 시도별·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학사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다. 8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밀집도 등을 고려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2단계의 경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1/3 수준으로, 고교는 2/3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하여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하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선제적 대응을 결정함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1~2학년)는 오는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진로,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3은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특수학교, 6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도 지역 감염증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및 원격수업 인프라,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교육부 대응체계

재확인에 나섰다. 교육부는 1학기에 약 898억 원(국고 188억 원, 특교 710억 원)을 투입하여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학교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40~60% 정도 소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8월 안에 28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체 학교에서 마스크 1인당 6.1개, 손소독제 교실당 6.4개, 손세정제 교실당 2.6개 이상 비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표] 학교 방역물품 현황

구분	하반기 지원예산 (계획량 대비 지원수준)	2학기 방역물품비축 모습 (상반기비축+하반기지원)
마스크	13,644 (100%)	37,569,568 (1인당 6.1개)
손소독제	1,051 (25%)	1,782,042 (교실당 6.4개)
알코올 티슈	12,480 (25%)	4,180,216 (교실당 15.1개)
손세정제	1,078 (25%)	742,913 (교실당 2.6개)
계	28,253	-

[그림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유치원·초·중·고)



인프라 확충, 225만 명 동시접속 원격수업 가능
또한, 현재 개학 3일 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을 유치원생 및 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심 증상자 등교중지 등 학교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원격수업) 격상에 대비하여 공공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데이터 지원 준비를 마쳤다. 지난 4~5월경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접속으로 공공플랫폼이 다운되고, 스마트기기 공급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크게 개선하였다. 현재 선제적 대응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 및 e-학습터를 각각 225만 명이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프라를 증설하였고, 향후 이용자 증가 시 각 3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규모까지 증설할 예정이다. 또한, 1학기에 희망하는 학생 전원(28.3만 명)에게 스마트기기를 무상 대여한 것에 추가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스마트기기 25만 대 여유분을 확보하였고, 과기정통부 및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주요 사이트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중앙-지역-학교현장 소통창구 '콜센터' 운영**
2학기에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등원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보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1일 8시간 참여가 원칙이나, 감염 우려로 인해 조기 하원을 희망할 경우, 기존 1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하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지자체 합동 학원 방역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중·소형 학원에 대해서는 9월 초까지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등교수업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지역(교육청-지자체) - 학교현장이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 본 기사는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1 _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 2 _ 학교현장에서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 방안

‘블렌디드 러닝·평가·기록’ 학교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글 편집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 방안」(8.6)을 발표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개선

먼저,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한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는 수업 및 평가, 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질의 수업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및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등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개별적인 환류가 가능한 협력 수업(co-teaching)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혼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수업 시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9월 중)하여 출결관리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가 시도별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에 적합한 출석 확인 방법을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평가·기록에서도 최대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를 확대하였다. 전국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은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성적 미산출, PASS제 도입 가능)하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2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나,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비대면 활동 권장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각종 교육활동도 다양한 비대면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적극 운영하되, 사회적

- 9월경 학급별 일괄 확인 가능한 출결관리 시스템 구축
- 거리두기 1·2단계, 수행평가·지필고사 중 선택 가능
- 3단계, 중2까지 미평가, 중3~고3 최소한의 평가로 대체

[표1]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구분	초	중		고	
		자유학기			
평가	1·2단계	- 성적 미산출 - 수행평가 선택 (평가 미실시 가능)	- 성적 산출 - 수행·지필평가 선택 가능 - (1·2학년) 평가 미실시 가능(P)	- 성적 미산출 - 평가 실시	- 성적 산출 - 수행·지필평가 선택 가능
	3단계				
교과세특	1·2·3 단계	- 모든 학생 기재	- 선택 기재 (특기할 만한 사항)	- 모든 학생 기재 ※ 자유학기활동포함	- 모든 학생의 기초, 탐구 교과 기재
		※ (3단계 시) 학생 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 기재 가능			
창체	1·2단계	- 모든 학생 기재 (정량자료 및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역), 관찰 가능 수업시간 확보			
	3단계	- (기본원칙) 모든 학생 필수 기재 - (자율활동) 정량기록 + 원격수업 내용 - (동아리활동) 정량기록 + 원격수업 또는 학생 활동 내용 ※ (가능할 경우)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 - (진로활동) 정량기록 + 원격수업 내용 +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진로상담 결과			
행·특	1·2단계	- 모든 학생 기재 (교사의 관찰·평가 내용, 상담내용) ※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3단계	- 모든 학생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관찰·평가 내용 기재 (필요 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			

[표2]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구분	1·2단계	3단계
자율활동	•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
동아리활동	•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 가급적 외부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	•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
봉사활동	•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자제 • 기존 감축 봉사활동 시수 유지*, 필요 시 추가 축소 등 조정 *(시수) 3년 기준 1/3 감축, 연간 기준 1/2 감축 (영역) 비대면·비접촉 확대	• 고입전형 반영 봉사활동 시수 폐지
진로활동	•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

66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평가·기록에서도 최대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99

- 1 _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한 선생님이 과학실에서 화학실험을 직접 시연하며 생방향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 2 _ 이론과 실습교육이 필요한 특성화고에서 한 선생님이 직접 기계장치를 작동하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 및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3단계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대체하되, 자체·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3단계에는 전면 원격 이론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기존의 대면 방식은 취소하고, 대신 온라인 기반의 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조·종례, 학급 회의 등을 통해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학교 특성별 맞춤형 운영 및 교원 근무환경 개선

유치원, 특수학교, 직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유치원은 「2019 개정누리과정」을 반영하여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각 유치원에 권고하고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 (~'20.8. 시행령 개정)하였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의 기능을 개선하여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학습꾸러미 제공, 1대 1 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과 실습,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전문교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원이 자체 개발한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중심의 실습수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실습수업을 세분화(원격+면대면)하여 실습실의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의 현장실습 기간을 감축(4주→1·2주)하고, 비대면 취업 면접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면접실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교원 업무부담 경감 등 제도적 지원을 계속한다. 등교·원격수업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둔 교원 복무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원격수업 중 수업 간섭, 수업 영상 위·변조 등 교원의



수업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원이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교육활동 인력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

[그림] 직업계고 실습수업 운영 방식 개선

	평상시 실습수업(예시)	실습수업 운영 개선(예시)
원격	기계과 2학년 1반(30명) 밀링가공(이론중심)(4시간)	기계과 2학년 1반(30명) 밀링가공(이론중심)(4시간)
대면	기계과 2학년 1반(30명) 밀링가공(실습중심)(4시간)	원격 A반(15명) 이론중심 원격수업 담당교사 A
	A반(15명) 실습실A 담당교사A	대면 B반(7명) 실습실A 담당교사B
	B반(15명) 실습실B 담당교사B	C반(8명) 실습실B 담당교사C (산학겸임교사)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여기서 확인하세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 대비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구축해왔다. 특히 각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사들이 주축이 돼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학습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힘써왔다.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원격수업은 더욱 확대·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소개한다. 글 양지선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기관에서 원격수업에 도움이 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상으로 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3월 개통한 온라인 학습 통합지원 플랫폼 ‘학교온’은 다양한 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자료를 공유하는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다. 전국 교사들이 제작한 일일 학습 안내 정보가 제공되며,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경기교사온’에서는 교사를 위한 원격수업 정보를 총망라했다. 원격수업 운영 매뉴얼과 온라인 학습 도구 비교, 동영상 제작 방법, 학생 도움 자료 등을 정리해 원격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학교가자.com’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눈길을 끌었다. 사이트 구축부터 콘텐츠 구성까지 오직 교사들의 힘으로 완성된 홈페이지에는 매일 오전 학년별·과목별 학습자료가 업로드되며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라이브 방송도 진행된다. 초등으로 시작해 현재 유치원, 중등까지

확대하며 폭넓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학생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이트 ‘꾸꾸’와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의 ‘베이스캠프’를 안내할 수 있다. 꾸꾸는 진단평가에 따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학습부진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며,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주요 교과별 학습 콘텐츠를 구성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각 학년 및 교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학생 스스로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 검사 문항을 구성했다. 사이트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이외에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학교급별로 이용 가능한 원격수업용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원격수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표준화된 원격수업 플랫폼도 필요해 보인다.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쌍방향 수업 및 동영상 업로드는 물론 학생의 출석, 과제 제출, 평가까지 일련의 수업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대상	사이트	주소	내용	이용 방법
공통	학교온	onschool.edunet.net	• 교육부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사이트로 다양한 온라인 학습자료 공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경기교사온	sites.google.com/ssem.re.kr/teacheron	•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 제작 방법, 학생 도움 자료, 온라인 학습 관리 안내 등 교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학교가자.com	daily.gegdaegu.org	•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매일 학년별, 과목별 콘텐츠 업로드 및 라이브 방송 운영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베이스캠프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www.plasedu.org/plas	• 초1~중3까지 학생 스스로 기초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교사들의 학습 지도 사례 공유, 학생들의 학습 관련 질문 공간 마련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서울학습도움센터	s-iam.sen.go.kr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교과기초학습 자료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이트 꾸꾸	www.basics.re.kr	• 초·중등 교과별 기초학습자료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유치원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seoul-i.sen.go.kr	• 집콕놀이 자료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경기도교육청 놀이ON	edup.goe.go.kr/kids-love	• 유아를 위한 놀이, 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콘텐츠 제공 • 교사, 학부모용 별도 카테고리 마련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이용
	충청북도교육청 i-놀이학교	www.cbe.go.kr/onlineSchool/edui_main.php	• 감염병 예방 안전 자료 및 온라인 놀이 지원 서비스 안내 • 학부모 위한 가정연계 활동 자료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jb-i.kr/index.jsp	• 코로나19 대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지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초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바로학교	www.바로학교.com	• 학년별 온라인 학습 활동지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내친구교육넷	www.gyo6.net	•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회원가입 후 이용
중·고등학교	전남교실ON	sites.google.com/view/rnscjf12	• 학년별 온라인 학습 활동지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서비스 지식(GSEEK)	www.gseek.kr	• 청소년 진로탐색을 비롯해 예체능, 4차 산업 관련 콘텐츠 등 310개 과정 제공	교사가 사이트 내 온라인 개학 콘텐츠 신청 등록
	전남 직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학습자료	highjob.jne.go.kr	• 전기·전자, 기계, 건설, 농림, 미용 등 실무교과 이론, 실습수업에 활용 가능한 영상 링크 제공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www.adiga.kr	• 대입정보 검색 및 학습진단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특수학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mentoring.career.go.kr	• 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인이 실시간 멘토링 수업을 실시하여 생생한 직업 정보 제공	교사가 사이트 내 회원 가입 후 교실 개설 승인 시 이후 이용 가능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	www.nise.go.kr	•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학습 콘텐츠 구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다문화 교육	전남온라인교육서비스	www.jne.go.kr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 정보-스마트&소프트웨어교육-전남온라인교육서비스)	•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원격 콘텐츠 탑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서울하늘숲초등학교

학교, 틀을 깬 공간이 되다

‘학교’라는 공간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는 대체로 천편일률적이다. 칠판을 향해 일렬로 늘어선 책상과 차갑고 딱딱한 교실 바닥, 엄숙한 분위기의 교무실 등. 교육부는 학교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이런 판에 박힌 학교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편의를 고려하고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하늘숲초등학교(교장 최성희)를 통해 새 시대에 맞는 학교 공간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글 양지선 기자

‘실내화를 벗고 들어오세요.’

서울하늘숲초등학교의 교실 문 앞에는 이와 같은 안내문이 적혀 있다. 맨발로 들어선 교실 바닥에서는 따끈한 온도가 느껴진다. 교실 안에서 편하게 눕고 뒹구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진다. 교실이 마치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 된 것이다.

이 학교 임정목 교무부장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사고와 신체 등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 공간이 예전 그 대로라면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힘들다.”라며 “학교에 왔을 때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안락함을 느끼면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서울하늘숲초는 개교 1년 전인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공간혁신사업인 ‘꿈담교실(꿈을 담은 교실)’로 지정됐다.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교 공간’을 전체적인 콘셉트로 구상하고 인근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이 모두 만족해하는 공간이 탄생했다.



1_계단을 이용한 다목적 놀이 공간 2_교무실을 줄인 대신 마련한 '하늘숲 카페' 3_교실 밖 복도에 마련된 작은 전시 공간 4_고정관념을 탈피한 사다리꼴 모형의 이형교실



맨발로 뛰어놀고, 3면이 칠판인 교실

학교의 모든 교실은 맨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마감재를 친환경 소재로 하고, 교실 앞과 뒤, 옆 3면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정면의 칠판만 응시해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책상 배치도 동그렇게 원을 그린 형태, 모듬별로 모인 형태 등으로 다양해졌다.

교실 앞뒤로는 불박이장을 설치해 쓰레기통과 청소함, 옷걸이를 집어넣어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했다. 수업 도구들은 정리함이자 의자, 연설대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 다용도 가구를 이용해 깔끔하게 수납했다. 교실 바깥쪽 복도에는 칸막이 벽체를 활용해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반마다 개성이 드러나도록 했다.

공간의 변화는 수업 내용의 변화도 이끌었다. 이 학교의 수업은 2교시를 묶은 80분 수업을 기본으로 한다. 때에 따라서는 3교시를 묶어 진행하기도 한다. 대신 중간놀이 시간을 길게 확보했다. 더 깊은

배움과 활동 위주의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학년별 발달단계에 맞춘 공간 구성

서울하늘숲초는 외부에서 학교 건물을 봤을 때 뼈죽하게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이형(異形) 교실로, 이 부분 덕분에 기존의 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교실이 탄생하게 됐다. 창문가에 턱으로 구분되어 살짝 올라가 있는 이 공간은 학생들이 숨어 노는 작은 놀이터이기도 하고, 독서 공간이기도 하다. 수업 시간에는 발표 무대로도 활용한다.

이형 교실은 총 12곳으로, 주로 고학년(5~6학년) 위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고학년의 경우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뭉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저학년 교실에서는 칠판의 높이를 낮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교실 뒤쪽의 게시판을 타공판으로 제작돼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을 자유롭게 배치해 전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교 공간 디자인을 맡은 최혜진 건축사(오즈앤엔즈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교실마다 차이점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년별로 교과과정도 다르고 성장과정도 다른데, 교실이 똑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전체적으로는 친환경 소재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해 원목의 따뜻한 느낌으로 통일성을 주면서 층별, 학년별, 교실별로 다른 색을 입혔다.”라고 설명했다. 교실 문, 바닥, 복도, 벽에 칠해진 색이 어느 하나 똑같이 겹치지 않는 이유다. 김태경 교사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다채로운 색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공간 확대

교실 밖에서 특징적인 장소 중 하나는 바로 교무실이다. 1층의 교장실과 교무실, ‘하늘숲 카페’는 문을 열면 마치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된다. 이는 소통의 공간을 의미한다.

오픈형 탕비실인 ‘하늘숲 카페’는 이름 그대로 카페를 연상케 한다. 노출형 천장 인테리어로 답답함을 없애고, 널찍한 곳에 자유롭게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반면 교무실은 긴 회의용 탁자만 존재하는 작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최혜진 건축사는 “초등학교 교사는 교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교무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늘렸다.”라고 말했다.

계단을 이용한 다목적 놀이 공간 역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곳이다. 두 개 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책꽂이를 벤치로 구성하고, 작은 미끄럼틀도 마련했다. 좁은 곳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숨을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편히 누워있거나 앉아서 책을 보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기도 한다. 단순히 계단으로만 이용됐을 유휴공간을 놓치지 않고 활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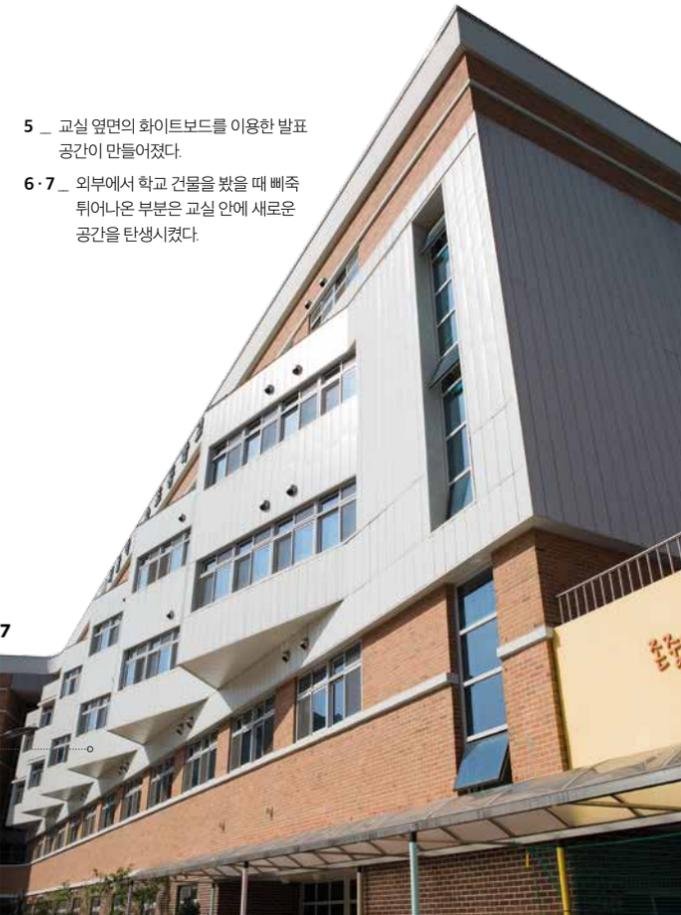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임정목 교사는 “놀이와 휴식, 독서가 모두 이뤄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작품 전시와 발표도 가능한 공간”이라며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비는 시간이 생길 때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복도에서는 땅따먹기 등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공연·버스킹이 가능한 쉼터도 마련했다. 교내 곳곳의 공간을 최대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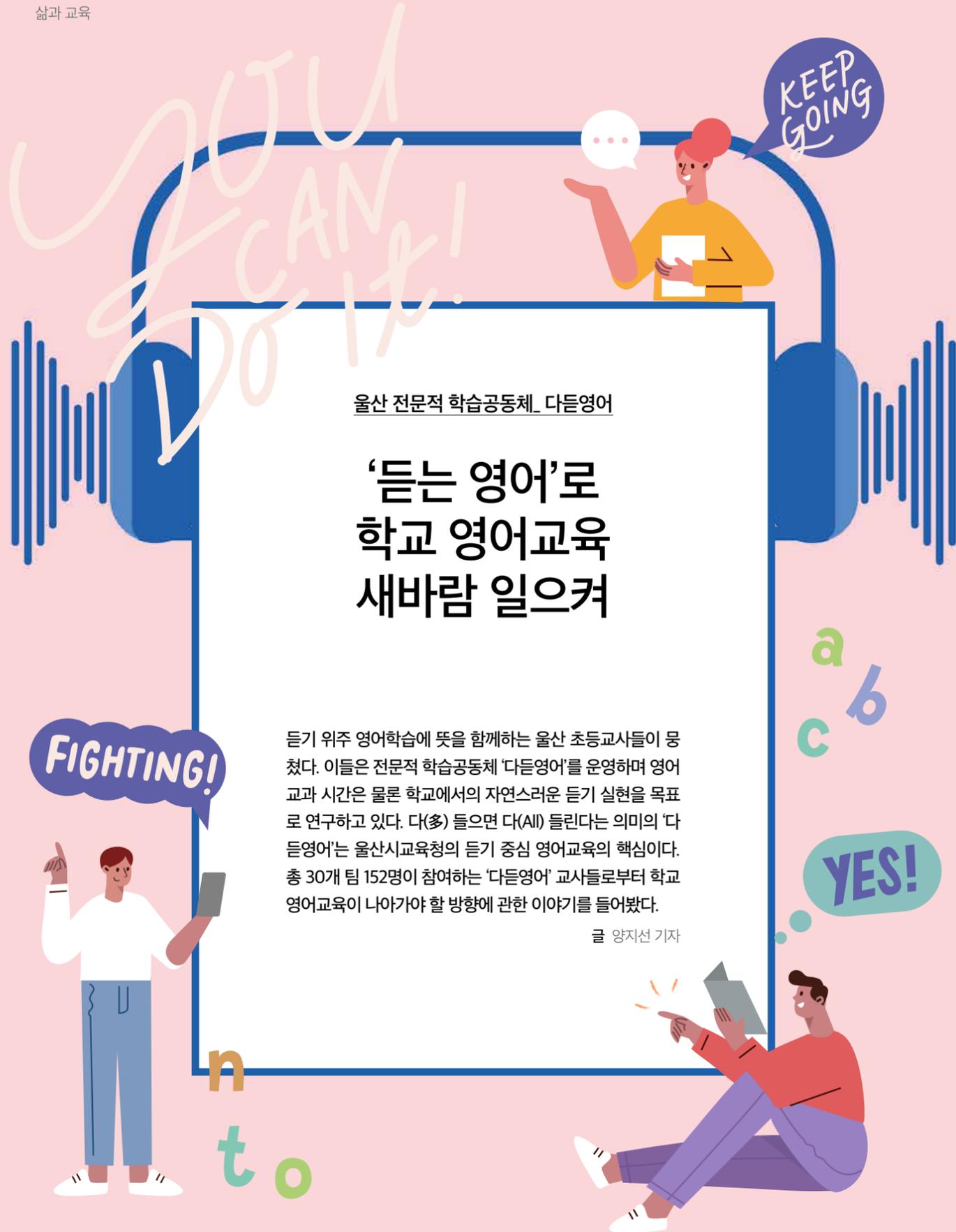
임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크고, 학교가 집보다 더 좋다는 표현을 한다.”라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아쉬웠는데, 이전처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과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5 _ 교실 옆면의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발표 공간이 만들어졌다.
6·7 _ 외부에서 학교 건물을 봤을 때 뼈죽 튀어나온 부분은 교실 안에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켰다.



6

7



울산 전문적 학습공동체_다들영어

‘듣는 영어’로 학교 영어교육 새바람 일으켜

듣기 위주 영어학습에 뜻을 함께하는 울산 초등교사들이 뭉쳤다. 이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다들영어’를 운영하며 영어 교과 시간은 물론 학교에서의 자연스러운 듣기 실현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다(多) 들으면 다(All) 들린다는 의미의 ‘다들영어’는 울산시교육청의 듣기 중심 영어교육의 핵심이다. 총 30개 팀 152명이 참여하는 ‘다들영어’ 교사들로부터 학교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양지선 기자

66

‘다들영어’는 학교에서의 자연스러운 듣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사 152명이 참여한다.

99

흔히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문법, 독해 위주 교육에 치중해있다고 여겨진다.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10년간 영어를 필수로 배우게 되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입 밖으로 한 마디를 내뱉기 어렵 다며 자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울산시교육청은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 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울산 형 초등영어교육 ‘다들영어’는 ‘많이 들으면 입 이 열린다.’라는 모토를 전제로 한다. 학교 안 밖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듣기 환경에 노출시키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로 영어에 대한 흥미 를 일깨우는 엔터테인먼트식 영어교육을 지향 한다.

듣기 위주 영어학습에 뜻을 함께하는 울산 초 등교사들도 뭉쳤다. ‘다들영어’ 전문적 학습공 동체는 교사 152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 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활용한 듣기 중심 수업, OTT(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를 활용한 듣기 생활화 방안, 영어 동화·동요로 실현하는 다들 영어, 학년별 듣기 활동 교수법 개발 등의 연구 주제는 30개 팀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했다.

전체 모임을 이끄는 신혜진(농서초) 교사는 “30개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동시 에 워크숍을 통해 AI와 스토리텔링, 노래를 활 용한 영어듣기 학습 등 공통 지식을 배우는 시 간도 가졌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전문 가를 모시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히 려 내부 교사들이 각자 자력으로 익힌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전했다.

역지 ‘학습’ 대신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환경으로

듣기 위주의 영어학습은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교육방식이기도 하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영 어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영어 유튜브 채널을 선 정해 학생들에게 주 1회 하나의 동영상을 시청 하도록 한 이정화(삼일초) 교사는 “재미있는 듣 기 자료를 제시해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며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와 영상으 로 지속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코로나 시 대의 효율적인 영어수업 방식”이라고 했다.

김미경(옥동초) 교사는 원격수업 기간 팝송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했다.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기존 영어학습 방식이나 활용 자료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듣기 노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단기간의 성과나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을 먼저 최대한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라며 “향후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양질의 듣기 콘텐츠 자료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민(문수초) 교사는 영어를 억지로 사용해 ‘학습’하는 환경이 아닌,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단순히 스펠링 외우기, 읽고 문법 정리하기 식의 수업은 실제 현실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내 말이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닐까?’라는 불필요한 자기검열과 발화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온라인상의 영어 콘텐츠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영어를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면 언어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험용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에 공감

박미정(울주명지초) 교사는 조회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활용해 넷플릭스의 키즈 애니메이션 <마사와 곰> 시리즈를 한글 자막과 무자막으로 번갈아 틀며 영어듣기 환경을 조성한다. 교실에 비치된 AI 스피커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얻도록 하고, 모르는 어휘는 태블릿PC를 통해 검색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표현도 함께 익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영어 수준이나 집중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지난 5월 8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다들영어 전문적 학습공동체 설명회 현장

모든 학생이 수업에 완전히 몰입해 적극적으로 영어를 듣고 말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식을 전달하고 외우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습득하고 체화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 되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영어’ 교사들은 이처럼 시험용 영어가 아닌 현실에서의 진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공감대와 함께 교사들의 치밀하고 전문적인 수업 설계로 틀이 잡혀갈 연구 과제들은 앞으로 학교 영어교육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한 교실 환경·전문성 있는 영어 전담교사 필요”

영어 교과수업에서의 특히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것은 학생 개인별 영어 실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사교육으로 인해 학급 내 영어 실력의 격차가 심해 수업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손영하(옥서초) 교사는 “영어는 특히나 개인별로

수준 차이가 많은 과목인데, 앞으로는 수준별 수업 콘텐츠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해보고 싶은 주제나 활동을 정해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얘기했다.

“다들영어’가 실제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개별 학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좋은 듣기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앉게 하고 그 콘텐츠를 스스로 찾아서 듣게 하기까지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박미정 교사는 “학급 내 영어 수준 격차는 물론 존재하지만, 학년에 따른 보편적 발달 수준과 정서 수준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면 모두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라고 했다. 이정화 교사는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교사 배치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다들영어’ 교사들은 앞으로 공교육 안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 충분한 수업자료와 유연한 교실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미정 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자재 확충과 수업자료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김민 교사는 “형식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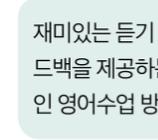
영어를 전문성 있는 교사가 교과 전담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손영하 교사는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휴직자나 기간제 교사가 영어 전담을 맡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영어 전담교사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Mini Talk



신혜진(농서초) 교사

코로나19 덕분에 내부 교사들이 각자 자력으로 익힌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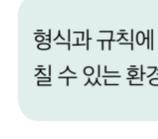
이정화(삼일초) 교사

재미있는 듣기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속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효율적인 영어수업 방식이다.



김미경(옥동초) 교사

단기간의 성과나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어 듣기 환경을 먼저 최대한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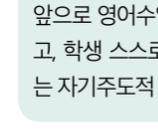
김민(문수초) 교사

형식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박미정(울주명지초) 교사

지식을 전달하고 외우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습득하고 체화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이 되는 것이 좋은 수업이다.



손영하(옥서초) 교사

앞으로 영어수업은 수준별 콘텐츠를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주제나 활동을 정해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형태가 되어야 한다.



불안할 일도, 걱정할 일도 많은 요즘입니다.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때 인데요. 하던 일은 잠시 멈추고, 힘들었던 자신을 보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휴식'을 주제로 <행복한 교육> 독자 여러분이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 9월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느끼며 쉬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주제는 '추석'입니다.
eduzine21@gmail.com으로 많은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 박성호 대구포산초등학교 교사

전체 등교기간(사회적 거리두기 전) 쉬는 시간 실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찰카!
체육활동 중간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벗지 못해 답답하지만, 이 때는 마스크 벗는 것보다 쓰고 있는 것이 익숙하네요.



◎ 김가연 내북초등학교 교무실무사

전교생 33명의 작은 시골 학교인 내북초등학교는 학교 곳곳이 학생들을 위한 상상(相想) 놀이터로 꾸며져 있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전교생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교 곳곳에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



FOCUS 01

하현우 명예기자(구미여고 교사)

구미여고,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 시간표 클릭 원격수업 연결...학사운영 한 곳에서

기존 학사통합 관리 시스템에 원격수업 추가

지난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할 역량 계발에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멈추지 않는 교육을 실현했지만, 한편으로는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온라인 수업 플랫폼의 조기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교육부 역시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플랫폼 구축이 추진될 만큼 온라인 수업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미여고의 '백합누리'를 소개한다.

구미여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백합누리'는 기존 학교에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학사통합 관리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교가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개발자와 소통하며 추가해 교육공동체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올해 초 개발 중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결정되고, 백합누리의 오픈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발 빠르게 기능을 추가한 것이 원격수업 기능이다.

개인별 시간표 클릭으로 원격수업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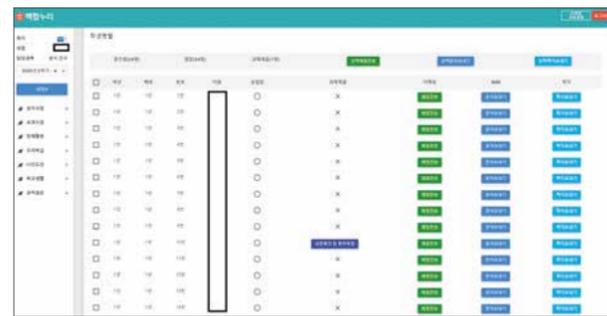
백합누리 원격수업 게시판은 아래와 같이 기간별, 학급별 개인시간표를 제공하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시간표를 제공한다. 흡사 대학교 학사운영시스템의 시간표 체계와 일맥상통한다. 교사는 이곳에 자신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EBS 온라인 클래스, 유튜브 등)의 링크 및 주의사항을 업로드하고, 학생들은 개인별 시간에 맞게 시간표를 클릭한 하면 원격수업으로 연결된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이 글을 열람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즉시 문자 메시지, 메일 발송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학생 로그인시 본인 선택과목대로 시간표가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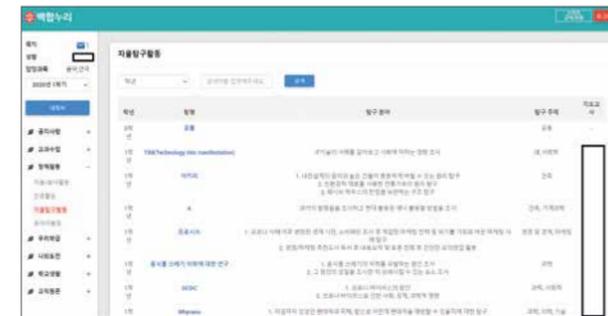
시간표의 과목을 클릭하면 해당 수업차시의 원격수업 URL로 연결



교사의 원격수업 로그인 장면



·'과목마당'
메뉴는 학교에서 개설된 전 과목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수업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평가서, 동료평가서를 웹상으로 수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토대로 과목별 교사는 과목별세부특기능력사항 기록에 참고하는 등 학습 전 과정의 소통 역할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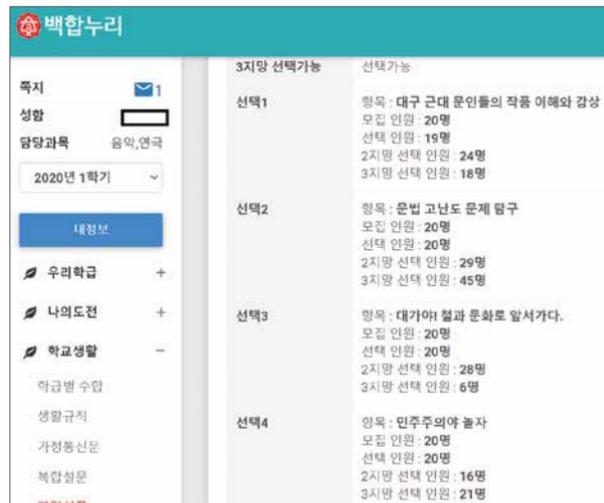


·'참여활동'
자율/봉사 활동, 진로, 자율탐구활동, 동아리활동의 소감문이나 활동 계획서 등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구미여고는 이를 활용하여 학기 초부터 백합누리를 통해 동아리 구성을 완료하는 등 온라인 참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활동들이 인상적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진로 및 관심분야별 자율탐구활동 역시 온라인으로 일부 운영하며, 등교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2020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업로드한 활동 보고서와 같은 자료는 백합누리 서버에 안정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원격수업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학급'
학급별로 수합해야 할 내용과 학급투표 등의 활동을 온라인상으로 구현해 놓았다. 이를 통해 가정통신문 절취선을 잘라 학급 임원이 학생들의 서류를 모으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고, 학급 운영을 위한 민주적 소통 경로가 온라인상에서 구현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현황을 학급별로 파악한 후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공유하기 때문에, 교과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결손 방지를 위해 현황 게시판을 보고 실시간 또는 녹화 수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FOCUS 01



· 나의도전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교내대회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담당 선생님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교내대회를 게시판으로 안내하면 정해진 시간에 대학의 수강신청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대회와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 학교생활

학생들의 생활규칙 안내 및 그린마일리지 운영, 가정통신문(SMS 발송 기능 포함), 그리고 설문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다. 특히 설문 게시판의 경우 지난 제41대 학생회장 선거를 유튜브 생중계 및 설문 게시판을 통해 훌륭하게 마쳤다. 교직원존의 부서별 일정을 안내하는 학교일정 게시판을 활용해 대면 교직원 회의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강의실예약 게시판을 통해 부분 등교개학 시 강의실별 밀집도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단체문자 메뉴를 통해 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원하는 학생 그룹에 즉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백합누리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다. 구미여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업데이트되고 있다. 실제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4월에 비해 없던 메뉴가 다수 생겼으며, 이를 위해 개발자와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이기도 한 구미여고는 수강신청 시스템과 개인시간표 관리 등의 시스템 정교화를 백합누리로 구현하려는 과제도 안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 백합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전 세계적 팬데믹 상태를 겪으면서 미래 교육에 있어 에듀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중에서도 온라인 학사운영 플랫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구상 중인 차세대 온라인 수업 플랫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는 보텀업 타입의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FOCUS 02

눈뜨자마자 자가진단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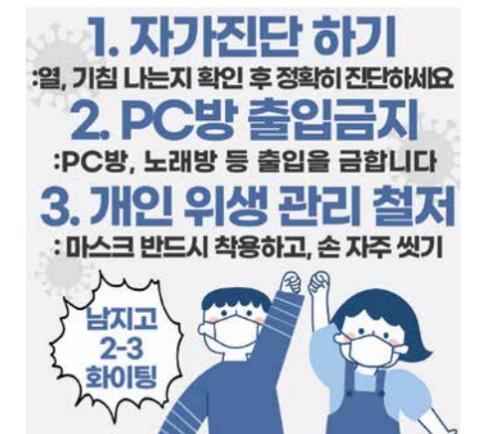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교육부가 늦은 개학을 시행한 이후부터 학생들은 매일 등교 전에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날에도 학생들은 매일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자가진단을 시행해야만 한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크게 '코로나 19 의심 증상', '위험지역 여행 여부', '동거가족 위험지역 여행 여부', '동거가족 자가 격리 여부'로 이뤄진다. 그 중 '코로나 19 의심 증상'에는 37.5°C 이상의 발열감,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이 있다.

학생들은 등교하는 날이면 아침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점심시간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지만,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을 시에는 등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가진단이라 할 수 있겠다. 담임 교사들은 매일 아침 학급 학생들이 자가진단을 하였는지, 또 등교중지 판정을 받은 학생은 없는지 확인한다. 담임 교사들의 끝없는 잔소리에다 까먹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학교마다 또는 학급마다 자가진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 19의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감염병 예방이다. 학생들은 PC방, 노래방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을 자주 씻어 청결하게 생활해야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온 국민의 실천만이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표] 남지고 학생들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요약)

학년	반	대상인원	설문응답		등교가능여부	
			응답자 수	응답률	등교가능	등교중지
1학년	7차일반/1반	23명	23명	100%	23명	0
	7차일반/2반	22명	22명	100%	22명	0
	7차일반/3반	22명	22명	100%	22명	0
	7차일반/4반	23명	23명	100%	23명	0
	7차일반/5반	23명	23명	100%	23명	0
2학년	7차일반/1반	23명	23명	100%	23명	0
	7차일반/2반	22명	22명	100%	22명	0
	7차일반/3반	23명	23명	100%	23명	0
	7차일반/4반	22명	22명	100%	22명	0
	7차일반/5반	20명	20명	100%	20명	0



안정적인 초등돌봄 운영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

- ✓ 초등돌봄(돌봄, 급식, 방역) 운영 상황 점검
- ✓ 돌봄교실 내 학년 및 발달단계, 운영 형태 등 원격수업 지원 현황 점검
-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돌봄 운영 및 돌봄교실 내 안전 점검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해설하고
교육계의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등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더 넓고 깊게 소개합니다.

- 더 넓고 더 깊게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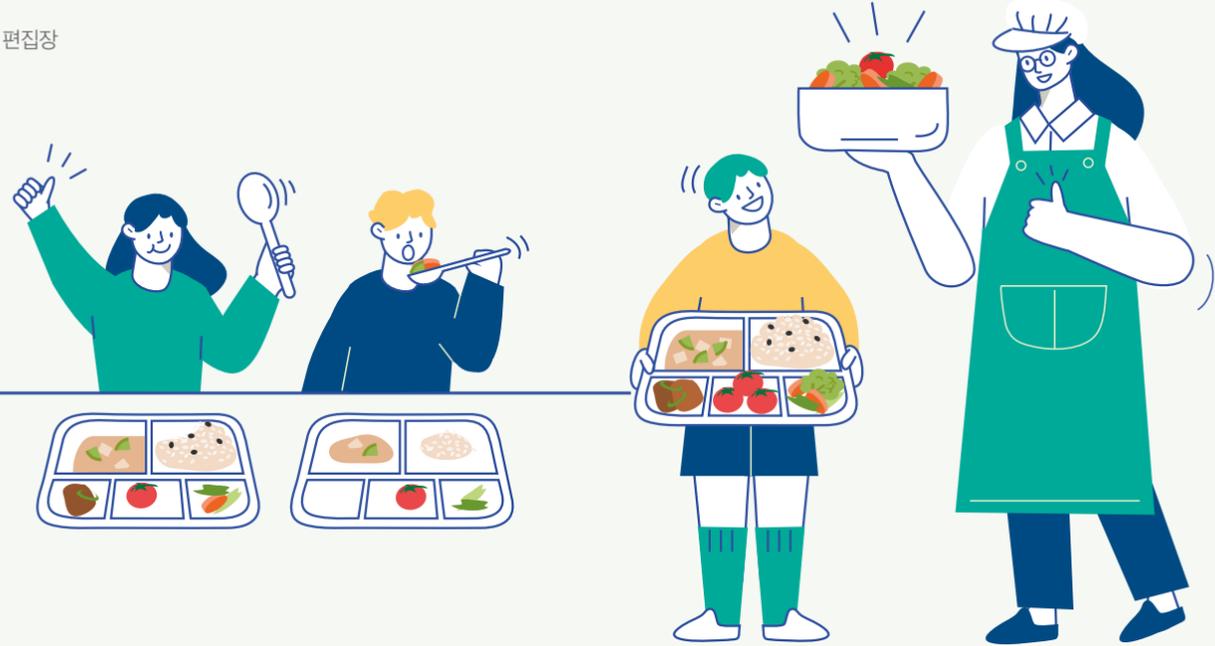


- 34 정책을 말하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 38 이슈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청렴한 교육부가 만듭니다!
- 43 이슈②**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청렴의 생활화 필요
- 44 이슈③**
이달의 우수부서(직원) 선정,
신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
- 46 교육자치시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 49 이달의 교육뉴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소규모 시설에 영양사 지원... 보존식 보관의무 강화

글 이순이 편집장



- 교육청에 영양사 배치 소규모 사립유치원 지원
- 50인 미만 시설에서 보관식 보관 의무화 추진
- 집단급식소 식재료 검수·조리·배식 전 과정 관리

지난 6월경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영유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안산지역 유치원 집단 식중독으로 원아 187명 중 118명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으며 17명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된 식재료에 있던 장출혈성대장균이 냉장고 고장에 의한 대장균 증식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유치원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급식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급식 관리체계를 보면, 유치원 및 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 집단급식소(50인 이상)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시설에 따라서 영양사 배치나 시설 기준, 준수사항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 시행

정부는 유아의 급식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 관계부처 합동(교육부·보건부·식약처)으로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44,162개소에 대한 급식 전수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급식 전수점검(7.6~7.31)에서는 위생 전반 사항과 건강 영향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50인 이상 집단급식소(169개 시설)에서는 보존식(41%), 건강진단(20%), 유통기한 경과(15%) 등 174건의 위반사항을, 50인 미만의 급식소(784개 시설)에서는 유통기한 경과(52%), 비위생적 취급(14%), 건강진단(9%) 등 8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50인 미만의 시설에서 위반율이 높았으며 관리자의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식의 경우, 50인 미만의 시설에서는 보관의무가 없어 79%는 보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수점검 결과와 현행 급식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계부처 합동(교육부·복지부·식약처)으로 8월 12일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1]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 결과(44,162개소)

구분	계	50인 이상		50인 미만	
		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위반율	위반/점검	위반/점검	지적/점검	위반/점검	위반/점검
계	953/44,162(2.2%)	169/15,953(1.1%)	232/4,397(5.3%)	552/23,812(2.3%)	
유치원	299/8,470(3.5%)	67/4,073(1.6%)	232/4,397(5.3%)	-	
어린이집	654/35,692(1.8%)	102/11,880(0.9%)	-	552/23,812(2.3%)	

[표2] 현행 시설별 급식 안전관리체계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집단급식소
연령	만 3세~취학 전	만 0~5세	만 6~18세	모든 연령
적용 법률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21.1-)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설치 신고자	원장	원장	학교장	대표자
영양사 배치	100인 이상 (5개 이내 공동관리 가능)	100인 이상 (5개 이내 공동관리 가능)	의무 (영양 교사)	50인 이상
시설 기준	조리실/설비·기구/ 보관실 등 16항목	조리실/설비·기구 등 4항목	조리실/설비·기구/ 보관실 등 26항목	조리장/급수시설/ 보관시설 등 17항목
준수사항	-	위생관리 등 12항목	시설관리 등 24항목	수질검사 등 9항목
조리·제공 식품 보관(보존식)	-	-	-	보관(144시간)

유치원·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전체 시설의 90%가 영양사 배치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시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청에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교육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영양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복지부·식약처).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영양사 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영양사 1인이 5개 시설까지 담당하던 것을 최대 2개 시설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를 단독 배치토록 하였다.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및 처벌 강화

또한, 앞으로는 50인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된다(교육부·복지부). 이는 학교급식법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영아가 주로 이용하는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보존식을 추가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감안, 권고키로 하였다. 보존식 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식약처). 기존에 미보관 시 50만 원, 폐기·훼손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 시행

연 1회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이 시행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이 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교육부). 어린이집의 경우, 연 1회 식약처·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하고, 수시 감독도 확대한다(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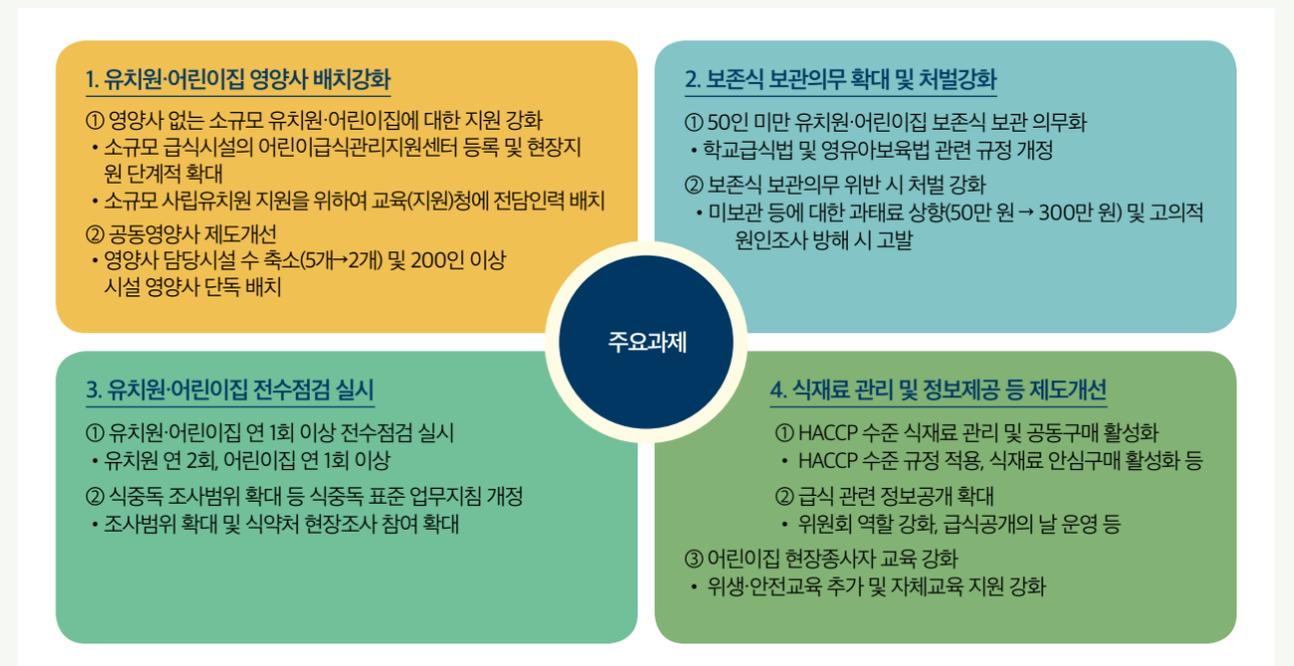
식중독 표준 업무 지침도 개선된다(식약처).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보존식 중심 검사(10개 항목)에서 식재료까지 조사범위를 확대(17개 항목)하고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도 참여한다.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제도개선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까지 모든 과정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준으로 식재료를 관리하고 공동구매 제도도 활성화한다.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5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의무를 적용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정책 성과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어린이집 식재료 안심구매란 기초지자체가 품질기준에 부합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 → 해당 식단표에 따라 어린이집별 필요 급식재료 매일 구매 → 당일 배송 → 신선도 및 위생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현행 초·중·고의 급식소위원회 제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식재료 조달, 식중독 예방조치 등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도 교육부·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그림]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 주요 내용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청렴한 교육부가 만듭니다!

글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공직사회의 부패 개선 뚜렷한 청신호!

2020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및 2020년 4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9)에서 대한민국 순위(점수)는 180개국(100점 만점) 중 30위권(59점, 대한민국 CPI의 최고점)으로 다시 진입하였고, 점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특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요인을 꼽자면 부패인식지수(CPI)를 산출하는 세부 평가

항목인 공직사회의 부패와 직접 관련된 지수의 변화를 들 수 있다(그림2). 이러한 결과는 「청탁금지법」 제정 및 투명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공직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나아가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교육부도 현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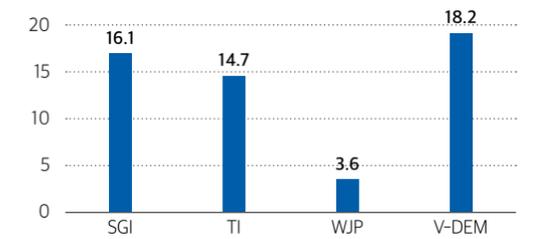
위와 같은 다양한 청렴활동은 업무는 물론 일터 전반에 변화된 모습으로 녹아들어 문화로 정착되었는데도 외부의 시선은 녹록치 않다. 기관 성격 등을 고려치 않고 기관 간 상대평가하는 방식의 현행 청렴도 평가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매년 시행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다른 기관보다 한발 먼저 앞서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참여와 실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 2회 참여중심형 집중 청렴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2주간) 운영하였던 2020년 상반기 집중 청렴주간 활동실적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상반기 집중 청렴주간 활동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청렴도 취약·저조 분야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크게 ①청렴생태계 조성, ②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③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청렴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일터는 물론,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그림2] 2017년 대비 2019년 공직사회 관련 CPI 지표에 대한 변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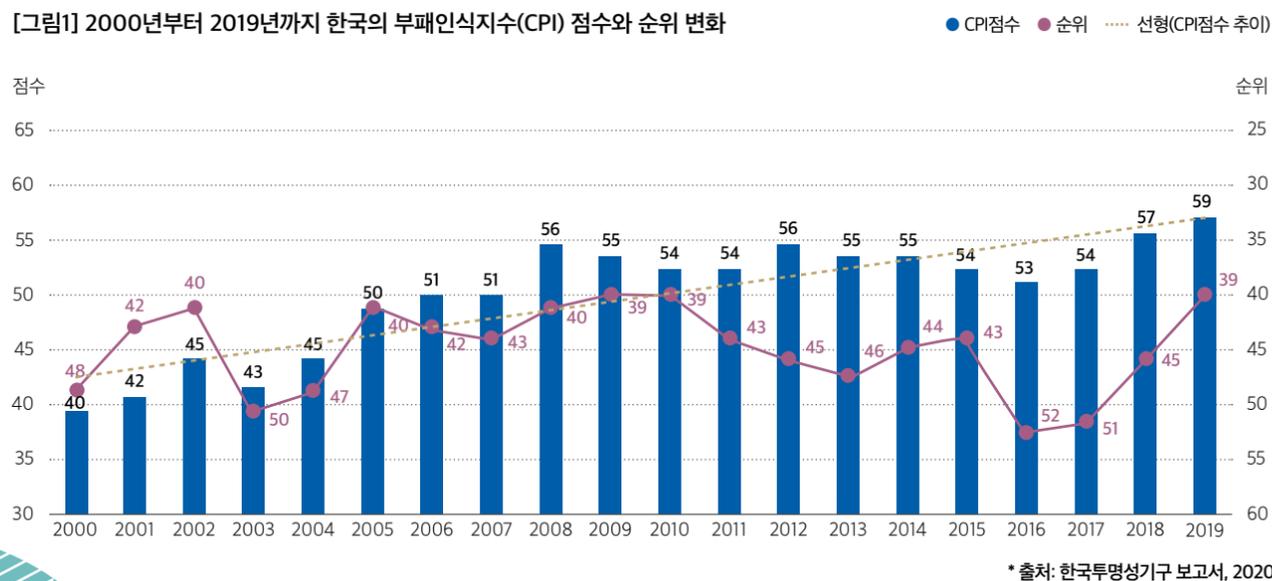
참조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산출 자료 중 SGI, TI, WJP, V-DEM은 공직사회의 부패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림2]는 이 지표에 대한 2017년 대비 2019년 변화 비율임.

- * SGI(지속가능지수) :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
- * TI(변화지수) :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이 처벌될 가능성과 정부가 성공적으로 부패를 제어할 능력
- * WJP(법치주의지수) : 공무원이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에 대한 역변환 점수
- * V-DEM(VDEM 부패지수) : 입법·사법·행정공무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 정도에 대한 역변환 점수

* 출처: 한국투명성기구 보고서, 2020

[그림1]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와 순위 변화



01 청렴 생태계 조성
먼저 청렴 생태계 조성 분야이다. 청렴은 문화이고 올바른 문화 정립 및 확산을 위해서는 주변과의 협력 그리고 외부인의 시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를 포함한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연대한 청렴문화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및 캠페인과 같은 실천 활동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목) 개최된 회의에서는 교육 분야 청렴 관련 이슈 및 실천방안과 청렴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법조계-건축계-교육계-공직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청렴음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음부즈만을 통해 수렴된 교육 분야 부패취약 분야 모니터링 결과 및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제언을 청렴문화운동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02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다음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분야이다. 청렴한 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全社的) 활동이 수반될 때 완성되므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원격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 관련법과 청렴 정책의 이해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해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육부의 건전한 공직풍토 등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분기별 내·외부 홈페이지에 추천된 청렴 실천 직원을 우대하는 ‘교육부 청백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그 사례를 내·외부에 전파하는 등 청렴 실천 사례 확산 추진을 통한 교육계 전반의 청렴도 개선과 청렴 실천 의지·문화를 고양시키고 있다(그림3).

03 **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확산**
끝으로 청렴문화운동 홍보 강화·확산 분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과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그저 정책을 만든 사람들만의 작은 움직임에 불과할 것이다. 청렴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확산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청렴 요소가 생활 깊숙히 안착될 수 있도록 청렴 실천·문화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 하반기 ‘교육부 청렴 표어 공모전’에서의 역대 수상작 문구를 활용한 기안문 제작과 이를 2020년 상반기 집중 청렴주간 동안 사용하여 청렴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강화 일환으로 청렴문화 저변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부 청렴 소식통’ 제작·보급 및 「청탁금지법」과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교육부 ‘반부패·청렴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여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 보급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 대한 청렴 체감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청렴 가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청렴은 의식으로만 머무르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몸에 베이고 편안하게 여길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이러한 청렴문화운동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일터는 물론,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②

[그림3] 1·2분기 교육부 청백리 선정·시상



① 1분기 교육부 청백리 대학학사제도와 행정주사 전미자
제목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와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전화번호 100번을 통해 전미자 주무관 번호를 안내받아 통화하게 되었는데 친절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피감독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현황 확인을 해주고, 빠르고 상세한 피드백은 물론, 추후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② 2분기 교육부 청백리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이윤하
제목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자유학기 교육과정 담당 이윤하님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학교 자유학기 및 교육과정 편성 91% 조정과 학기 구분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너무도 친절하고 문의에 대해 상세하게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 강의 준비 및 시행, 학생 건강관리 및 생활교육, 학사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이 통화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소임을 다한다는 느낌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참고문헌
2019 대한민국 부패인식 지수 보고서(한국투명성기구), 2020.
2019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reports(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0.

교육부와 함께하는 <청렴 퀴즈> 이벤트

QR코드 찍고 청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응모기간 2020.9.21(월) ~ 2020.10.6.(화)
- 응모방법 QR코드 또는 <행복한 교육> 웹진 happyedu.moe.go.kr
- 당첨자 발표 2020.10.23.(금) 40명 추첨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

교육부와 함께하는 <청렴 설문> 이벤트

QR코드 찍고 청렴 설문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응모기간 2020.9.21(월) ~ 2020.10.6.(화)
- 응모방법 QR코드 또는 <행복한 교육> 웹진 happyedu.moe.go.kr
- 당첨자 발표 2020.10.23.(금) 50명 추첨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

슬기로운 청렴 생활

외부강의등 신고 편, 그것이 알고 싶다

외부강의등?

- 근거
「청탁금지법」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발표·토론회·세미나·공청회·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Q&A
Q 공청회, 간담회 참가 및 사회자로 의견을 전달하는 회의 진행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Q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회의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 1회 기준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음	같음	○
다름	같음	같음	같음	○

외부강의등 신고 자가진단법

- 국세청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내역 확인*
소득구분에서 '강연료등', '원고료등',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 중 ▶ 본인의 e-사람 외부강의 신고 내역과 차이(누락) 발생시 ▶ 외부강의 신고(※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참고)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내역 확인 방법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 ▶ (왼쪽 상단)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강의로,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 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이때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건 당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 당	40만 원	100만 원
1시간 초과시	60만 원	제한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 시간당 100만 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횟수 제한

-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 뿐만 아니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단, 국가·지자체 요청시 신고 의무 없음)
- 제한 횟수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 횟수는 각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예] 교육부 공무원 외부강의 제한 횟수: 월 3회 또는 월 6시간(겸직 허가 제외) ②

참고문헌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2019.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청렴의 생활화 필요

글 임석재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작가/행정학 박사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다. 그간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위를 오·남용하는 일이 줄어들었을까? 우리 사회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이루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 청렴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점수는 2점,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다. 이는 점수와 순위 모두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독일 베텔스만재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주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이 효과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기에 긍정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경험, 부패 발생 원인 등에 대한 201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3%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첫 번째 이유(52.4%)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부패 발생 원인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 문화(32.3%),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3.1%), 고비용 정치구조(22%), 불합리한 법·제도·규제(2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부’라는 비전 아래 청렴정책 참여 확대, 청렴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을, 부패관행 근원적 차단, 행동강령 제도 정비 및 이행 정착을 통한 ‘부패위험 제거·개선’을, 반부패·청렴교육 내실화, 부패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패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정착’을, 청렴 실천 발굴·확산, 청렴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저변 확산’을 중점추진과제로 ‘청렴문화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니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멋진 문구와 현란한 표현만으로 좋은 정책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은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렴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청렴과 같이 감성적 이해를 통한 이성적 실천이 요구되는 분야는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는 말보다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청렴’이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삶 속의 작은 청렴이, 청렴 속의 커다란 삶을 명심하면 좋겠다. ②

이달의 우수부서(직원) 선정, 신나게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

글 이순이 편집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허영기
교육통계과 서기관

‘이달의 우수직원’ 선정,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교육부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한 팀(One Team)으로 신나게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조직문화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
고, 그 일환으로 ‘이달의 우수부서(직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행사
는 주변 동료가 우수부서 또는 직원을 직접 추천하고 최종 수상자도 직원의
투표로 선정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주체라
는데 그 의미가 있다.

첫 수상의 영예는 교육통계과의 허영기 서기관에게 돌아갔다. 허영기 서기관
은 투표에 참여한 전체 직원의 30% 이상의 지지를 받아 7월 ‘이달의 우수직
원’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1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학교폭력 근절 업무를
시작으로, 대학재정 사업총괄, 지방교육재정 총괄, 교육부 업무 기획, 차관 보
좌 등 주요 업무와 보직을 맡아 왔다. 특히, 지난 1월 데이터 관련 3법 개정 이
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시범과제’ 등 생소하고 어려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자세에 많은 직
원이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 부총리, “부서 간의 칸막이 없애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만들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지난 8월 6일 교육통계과를 직
접 찾아가 허영기 서기관을 격려하고 응원하였다. 기존의 시상식 형식을 벗어
나서 기관장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시상하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작은 변화
를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자 하는 부총리의 무언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
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허영기 서기관에게 우수직원 명패와 상금을 시상하고 교육
통계과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직원들과 얘기하며 교감할 기회가 줄어서 아쉽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의미



주변 동료가 직접 추천하고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이달의 우수부서(직원)’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

있는 자리가 생겨서 기쁘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공동의
경험’을 쌓았고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동료의 뜨거운 칭찬과 응원 속에서 첫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허영기 서기관
은 “순환보직인 공직에서 운이 따라주어 주요 요직을 거친 것 같다.”라며 “이
상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동료들의 격려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의 과학화’에 앞장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행정의 과학화에 대
한 대화도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부문 간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나아가 정부-민간 간의 정보 공
유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기본통계를 비롯해 (유·초·중·고·대
학) 교육정보공시, 고등통계, 초중등 사교육비 등 주요 교육 공공데이터를 총
괄하는 교육통계과가 주도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교육 관련 공
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이 그 변
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교육행정의 과학화 업무를 맡고 있는 허 서기관
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업무는 우리 부서만의 일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새로운 영역이기에 배우면서 일하고 있고, 특히 전
산 전문가인 동료들과 타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치열하게 고민
해서 올해에는 성과를 좀 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모범이 되는 동료와 부서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사례를 연말까지 매달 발굴하여 ‘이달의 우수부서(직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

"역쉬~입니다."
"어렵고 생소한 영역의 일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명블허전 허영기, 가즈아"
"허 서기관님 칭찬합니다."
"서기관님 사랑합니다."

‘이달의 우수직원’(허영기 서기관) 시상을 위해
교육통계과를 방문한 유 부총리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와 더불어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_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학교 밖 배움으로 신산업 전문인재 기른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이는 도내 농업·공업·상업계열 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 전문직업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론 및 실무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창의융합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글 양지선 기자



66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기르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99

전라남도교육청이 대학 및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나섰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문기술 능력을 기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첨단 농업기술교육인 미래Young農人(영농인) 과정 △자율자동차 과정인 e-모빌리티(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이동수단) △금융 빅데이터 과정인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등 농업·공업·상업계열별로 구성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본격 운영이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순천대학교, 광주산학융합원과의 협력을 통해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래영농인 과정은 순천대학교 농업교육학과와 연계해 농업계고 2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총 74시간의 집중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농업환경서비스, 생명공학, 농업생산시설제어와 농공융용, 융복합 농기업, 농축산물 가공 분야로 나뉘어 학생들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순천대학교의 실습실을 활용해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첨단 농업기술을 배우고 실무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5명 이하로 그룹을 나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순천대학교 강대구 교수는 “농업교육 최초로 시도한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미래 농산업을 사전에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1 _ 미래영농인 과정 수료식
2 _ e-모빌리티 과정의 메이커톤 경진대회 현장



스마트팜·자율주행·핀테크 등 미래 신산업 교육과정 구성

e-모빌리티 과정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초이론 및 융합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업계고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전공학과 2학년 학생 중 추천된 20명이 참여했다. 광주산학융합원과 연계된 해당 과정은 e-모빌리티와 자율주행에 관한 학계 전문가의 기초교육 강의와 메이커톤(make a ton) 경진대회로 이뤄졌다.

메이커톤은 2인 1팀이 이틀에 걸쳐 각자 창의적으로 구상한 미래 모빌리티를 3D프린터로 제작해 경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품을 시연해보는 경험은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웠다.

핀테크 과정은 목포여자상업고와 순천청암고 2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 빅데이터·AI 활용, 금융권 블록체인 등을 교육한다.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돼 학생 개인 비용 부담이 없다.

이현희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전문직업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②

3 _ 핀테크 과정에 참여한 목포여자상·순천청암고 학생들



Mini Interview

오상원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 Q1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계기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학교 학습 환경은 아무래도 제한적인데, 첨단 실습실에서 전문가의 강의를 경험한다면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기존의 현장실습과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이 구분되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동력 산업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기존에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Q2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올해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교육 이수율 완료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중이다. 각 프로그램은 과정당 4,000만~5,000만 원 사이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1주일간 집중 교육이 이뤄졌던 미래영농인 과정에서는 팀별 프로젝트 활동이 이뤄졌는데, 학교에 없는 첨단 기자재 위주의 실습이 이뤄져 학생들이 무척 흥미로워했다.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실험 실습을 도와준 것도 인상 깊었던 점으로 꼽았다.
- Q3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학생이 모이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소규모 그룹별로 모이도록 하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 수준과 난이도를 최대한 고려해 구성했는데, 향후 진행 시에도 충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학교 밖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Q4 향후 직업교육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의 계획은?**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취업처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중학생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학교 유휴공간 리모델링, 명장 활용 기술 전수 교육, 취업 마인드 교육,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등을 통해 특성화고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EDUCATION
NEWS**

01 정부,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나선다

- ①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
- ② 팩트체크 교육 강화 및 알고리즘 이해교육 실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추진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학교미디어 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된 교육 현장을 집중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검증 대상 제시 및 팩트체크 과정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사용 교육도 실시한다.



EDUCATION
NEWS

02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 5,000명 양성한다

- Ⓧ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현직 교사 재교육
-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실 수업 혁신 기대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5년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매년 현직 교사 1,000명을 선발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전문 교사로 재교육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실 수업의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대학원 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신설·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의 전공 승인과 함께 교육대상자의 학기당 등록금 50%(15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거쳐 초·중·고 현직 교사 1,046명을 선발했으며, 9월부터(후기) 38개 교육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은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되며, 교육대상자는 4~6학기 내에 논문 또는 비논문 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과 교과 융합, 인공지능 활용 수업 설계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아울러 연구·지원 센터를 통해 38개 교육대학원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공통 과목 개발, 학점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지원 센터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대학원 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및 성과 공유, 공통 과목 및 콘텐츠 개발, 학점 교류,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평가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대학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교과군별 융합·심화 과정 등 교육과정 특성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표]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교육과정 구성

구분	기초·공통 과목	선택 과목	현장 연구
이수학점	9학점	AI융합교육 12~15학점	AI활용 수업설계·현장연구 6~9학점
과정운영	교육대학원, 또는 협동 과정 (교육대학원 + 이공계 대학원) ※ 범교과에서 AI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 내용 중심으로 운영		
학위	교육학 석사 (전공명: 인공지능 융합교육)		

03 원격수업 질 제고 위한 교원 원격연수 실시

- Ⓧ 4주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진행
- Ⓧ 혁신적 수업방식 및 평가경험·성공사례 공유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교원들의 미래형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1,840명 내외 규모로 진행한다.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교육 경험·전문성 등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심화 과정을 나눠 운영한다. 기본과정은 수업도구 사용 실습·수업사례 체험·수업 디자인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수업기법 체험 외에 수업디자인 사례 공유 및 상호 피드백을 포함하여 운영된다.

이번 연수의 강사로는 원격수업 등 미래형 수업·평가 등에 혁신적인 전문성이 있는 미래교실네트워크(대표 최명숙)와 참쌤스쿨(대표 김차명) 소속 대표 교사들이 참여한다.

황연경(미래교실네트워크, 행신고) 교사는 '하루 한 가지 천천히'라는 강의를 통해 원격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원격수업 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강의한다.

김준형(미래교실네트워크, 강일여고) 교사는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나만의 수업 브랜드 만들기'라는 주제로 코로나 전후의 수업을 비교해보고 수강생들이 직접 온·오프라인 수업을 설계 후 상호 검토를 통해 수업을 완성시킨다.

김차명(참쌤스쿨, 경기 배곧초) 교사는 '온라인 수업, 2학기에 더 제대로, 즐겁게, 쉽게'라는 주제로 원격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사용법과 블렌디드 수업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lms.kofac.re.kr)에 먼저 가입을 한 후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를 수료하면 직무 연수로 인정한다. ②

[표] 교원 원격연수 내용 및 일정

	기본과정 연수	심화과정 연수
대상	총 900명 내외 (40개 분반×23명)	총 900명 내외 (40개 분반×23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 도구 실습 블렌디드 수업 입문 온라인 수업 사례 체험 수업디자인 실습 원격수업 중 생활지도 (아동학대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교육 사례 및 수업·평가 기법 체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 교수·평가 기록 일체화 수업 디자인 수업디자인 발표 및 동료 코칭
연수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 2020.8.31.~9.1. (2기) 2020.9.2.~9.3. (3기) 2020.9.14.~9.15. (4기) 2020.9.16.~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 2020.9.7.~9.8. (2기) 2020.9.9.~9.10. (3기) 2020.9.21.~9.22. (4기) 2020.9.23.~9.24.
시수	4차시(2일, 1일 2차시)	4차시(2일, 1일 2차시)



내일을 생각하는 '착한 에너지'가 대세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보안, 미래 에너지 개발,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이다.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에너지산업과 ICT, 자동차 등 제조업, 농업, 금융 등 다른 산업을 융합해 미래사회를 변혁할 혁신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분야로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전력망), 초전도 케이블, 화력발전소 효율 향상, 전기차 서비스 등이 있다.



국내외 동향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 중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1,229만 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는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이 있다.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컫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농촌·산업단지 용자지원 확대, 자가용 신재생 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등을 진행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전기차, 수소차 등 보급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급속 충전기 1만 5,000대와 완속충전기 3만 대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소차도 누적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충전소 450개소 설치 및 수소 유통기반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은 화물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5,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총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구축하며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16년 7.0%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2년 10.5%, 2030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  **영국** 영국 정부는 수도인 런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장단기 목표를 설정 후 지속적으로 이행여부 점검.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감축 계획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력·열 공급률 25% 달성을 목표로 함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수도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민간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에너지 사용량 25% 감축 계획
-  **스웨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행태를 장려하고 가정용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탈피하고, 가정용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30% 자체 충당을 목표로 둠
-  **미국** 하와이의 에너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2011년부터 2017년까지 EV 200여 대, EV-PCS 80기, 급속충전소 13기 보급
-  **글로벌 기업**
 - GE사: 풍력발전단지가 기존 화력발전단지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 극대화를 위한 제어기기와 전자장비 조합
 - Centrica사: 스마트미터를 이용해 30분 단위로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수집해 실시간 전력수요 동향 분석하고 전기 및 가스 소비량, 요금 확인 가능
 - LAWSON사: 자연순환 환기, 바닥공기 제공에 의한 지열 이용, 환기 채광 등을 도입해 에너지 절약 성능 제고, IoT 기반 원격 제어 가능한 배터리와 LED 조명 도입해 절전



TIP BOX

관련 직무
—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 **하는 일**
 -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수소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관리하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발전 기술자, 풍력발전설비 기술자, 지열발전설비 기술자, 에너지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기술자 등이 있다.
- **준비 과정**
 - 대학에서 신재생에너지학, 전기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 에너지관리학, 태양광공학, 에너지자원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과, 전기과 등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전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공사 기사/산업기사 등의 국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 **적성 및 흥미**
 -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들여야 한다. 전기를 만드는 기계 장비나 측정 도구를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기계·기구를 만들고 조작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 참고할 만한 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산업화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정책 수립 및 연구, KS인증, 주택·건물·지역 등 대상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RFS, 공공),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발굴·관리, 홍보 및 교육,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발전 원리, 설치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요와 관련 설비 시공 및 제조·판매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용어사전, 통계자료, 사업 안내 자료 등을 정리해놓아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고용정보원 <2020 청년 혁신성장 직업전망>, 산업통상자원부(2018)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선도 사례 연구>, 커리어넷

산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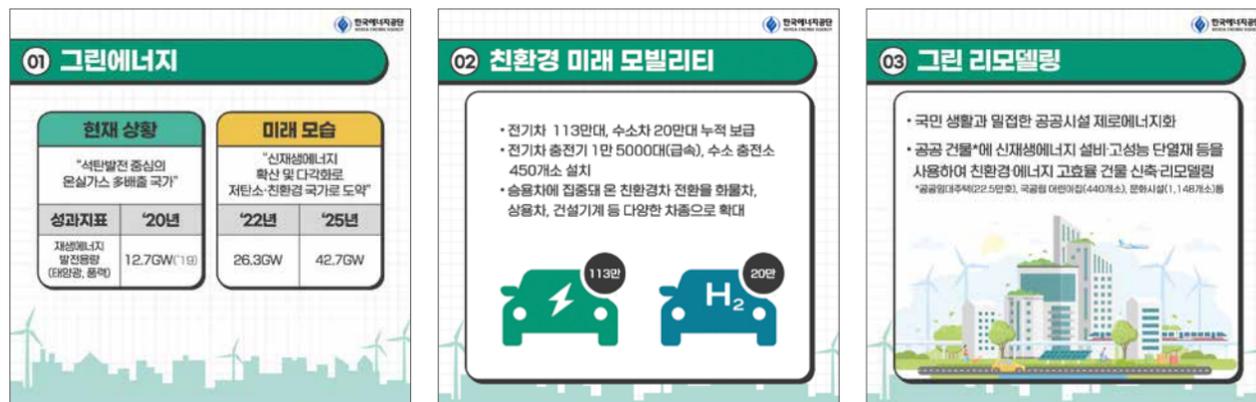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은 기존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이 밖에도 저탄소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를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석탄화력소와 고효율 발전시스템(USD)을 40%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공정을 위해 폐열, 폐냉기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해 발전소 9기 규모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공장도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 내 주요 직종 중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용과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의 성장세는 2013년 이후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공학기술자의 경우 향후 10년간 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생산 시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세계 각국은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의 20% 정도를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늘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성장할 것이고 관련 연구자와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②

정리 편집실



자연은 위대한 교과서

글 조원표 경기 푸른솔초등학교 교사

어릴 적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주는 아름답고 향기 넘치는 ‘맛’을 먹으며 자랐다.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해 질 녘 석양에 걸친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오월의 뽕꼭새 울음소리, 물총새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등을 연상하며 향수에 젖을 때가 많았다.

최근 스마트폰 만능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언제부터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몰입해 있는 광경을 흔히 보게 된다. 이제는 소통의 대상이 스마트폰이 돼버린 것이다.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묻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교한 뒤 내 모습을 돌이켜봤다.

‘나는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미를 나누며 살고 있을까?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며 소통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러하듯 우리 삶도 인연이라는 소중한 끈으로 연결돼 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러나 빈틈없이 치밀한 그 끈을 우리는 ‘인연’이라 부른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며 인연을 맺는 우리이기에 첫 출발이 중요하다. 교사가 교사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 소중한 인격체의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사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꼭 쥐고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어린 새싹들이 떠오르는 해를 재촉하며 아침을 환하게



오늘도 자연과 호흡하며
꿈을 가꾸고 키우는 아이들이 있기에 행복하다.



비추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아침맞이로 하이파이브를 한다. 아침 인사를 나누다 보면 시무룩한 아이도 있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 아이도 있다. 하이파이브를 통해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다.

온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내 나이를 잊을 때가 많다. 마침 교정에 아이들과 함께 놀기 좋은 곳이 있다. 바로 연못과 학교 숲이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그나마 학교에 작은 숲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된다. 한창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귀한 존재가 아닌가 싶다.

금붕어들이 뛰놀고 물방개와 우렁이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은 탄성을 지른다.

“선생님,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제법 큰 물고기 여러 마리가 잼싸게 움직이고 있다. 금붕어만 보다가 신기한 녀석들을 처음 보니 깜짝 놀랄 만도 하다. 물풀 밑을 잘 관찰해보면 다양한 종류의 작은 생물들도 살고 있다. 연못 관찰이 심심하다 싶으면 이름 모를 들풀과 클로버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된다. 네잎클로버 먼저 찾기 게임을 하면 참 재미있다. 먼저 찾은 순서대로 급식 먹기 경쟁을 붙이면 네잎클로버를 금방 찾아온다. 어디서 날아온 지도 모를 벌들과 나비 같은 녀석들이 이곳저곳의 꽃과 나무에 앉아 그들만의 향연을 펼친다. 이 녀석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가끔씩은 교실까지 날아와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서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돌발 상황이 오기도 한다. 한 아이가 신기한 보물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 왕거미를 보면서 “애들아, 저기 거미줄에 거미 좀 봐.”라며 큰소리로 외친다. 역시 자연은 아이들에게 위대한 교과서다. 오늘도 자연과 호흡하며 꿈을 가꾸고 키우는 아이들이 있기에 행복하다. ⑦



불안의 철학

글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어차피 삶이 불안을 가로질러 가는 과정이라면,
고개 돌려 피하지 말고 그러려니 웃으며 즐겨야 할 일이다.



‘떨고 있는 지남침 바늘처럼’

29세로 요절한 시인 기형도는 ‘안개’라는 시에서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시 속의 ‘안개’를 나는 ‘불안’이란 글자로 바꾸고 싶다.

질은 안개는 이쪽에서 저쪽을, 저쪽에서 이쪽을 서로 보이지 않게 감춰주고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개는 안주하거나 도망치려는 사람에게는 은둔과 은밀한 도피를 도와준다. 그런데, 먼 곳을 쳐다보거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인간은 불투명하면 답답해지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

이처럼 불안은 전망이 불투명할 때 생겨나는 본능적 심리이다. 인간이 무언가를 전망하는 것은 안정된 ‘공간적 지도’와 명료한 ‘시간적 진행 과정’을 인지할 때다. 우리가 수시로 눈을 깜빡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주위 공간 및 대상에 늘 ‘주의·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야 할 길의 안전한 방향을 찾고, 아울러 - 주행 중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면 급제동을 하듯 - 시시각각의 닥쳐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습성은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터득한 무의식적 행동일 것이다.

북극을 가리키며 가는 바늘 끝을 끊임없이 불안스레 떨고 있는 지남침처럼, 우리의 몸과 정신은 ‘흔들리면서’ 살아있다. 그것을 멈추면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맞다. 불안도 삶의 건강한 하나의 표현이다.

삶, 근심·걱정 보따리

“사람이 태어나면, 근심[憂]과 더불어 살아간다. 장수한다고 해봤자 정신은 혼미한 채 오래도록 근심하며 죽지 않는 것이니,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人之生也, 與憂俱生, 壽者惛惛, 久憂不死, 何苦也)” 『장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네 삶은 누구나 근심·걱정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태어나서 살다 죽는다는 말이다. 기독교에서는 ‘원죄’라 하고, 불교에서는 ‘고(苦)’라 하고, 유교에서는 ‘우환(憂患)’이라 하나, 결국 인간 존재의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다.

누구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는다. 오른손으로 불을 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반가사유상을 보라. 웃고 있는 환희의 얼굴도, 울고 있는 비애의 얼굴도 아니다. 그 어중간한 지점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사유하고 있는 듯하다. 생(生)이 있게 되면, 필연적 코스로 노-병-사가 없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삶은 축복인가? 비극인가?

살아있는 인간은 과거의 회상-기억-추억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내적·심리적인 불안을 느낀다. 이것을 ‘근심’으로 보고 ‘우(憂)’라 한다. 아울러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외적인 사건-사태를 경험하며 불안을 겪는다. 이것을 ‘걱정’으로 보고 ‘환(患)’이라 한다. ‘우’는 다가올 것 [=희망, 기대, 예측]에 대한 불안을, ‘환’은 눈앞에 벌어지는 것 [=현실, 사실, 경험]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라고 ‘진도아리랑’은 노래한다. 저 하늘의 잔별이 내 마음속의 근심·걱정이라니. 아니, 그것이 ‘빛나는 별’이라니!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반짝이는 별인 것이다. 불안을 따스게 가슴 속에 껴안고 살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느끼는 대목이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다면!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왜 사냐건/웃지요!”처럼, 웃으며 불안의 늪을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혜가(慧可)가 너무 괴롭고 불안하여 달마(達磨)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나?” “내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다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미 고쳐놓았느니라. 가 보거라!” 그렇다. 모두 마음이 만든 ‘상’(相=想)이다. 어차피 삶이 불안을 가로질러 가는 과정이라면, 그 길은 흔들리는 마음에서 눈 떴지 말고, 고개 돌려 피하지 말고, 그러려니 웃으며 즐겨야 할 일이다.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



교실에서 감정조절이 힘들어요

글 김서규 / 경기대 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교사의 질문

초임 교사일 때는 학생들을 대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제 맘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자꾸 화가 나고 욕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ANSWER

선생님, 교실에서 화내지 않는 분은 지식전달자의 위치를 초월해서 이미 참스승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겠지요.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가 저녁이 되면 여러 종류의 새들을 가지에 다 품어주듯, 다양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각종 문제와 실수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가 될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필요한 심리적 자세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사와 학생은 수직적 관계였지만, 요즘에는 수평적 관계로 변했습니다. 아직도 전자의 교사상을 마음에 간직하시면, 학생에게 '감히', '버릇없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선생님이 오히려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학생이지.' '내 관점에 일치해야 참 학생이지.' 하는 것은 교사의 주관적인 틀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오류입니다. 내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투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여겨 화를 내는 자기애적 습관일 뿐이지요. 이 습관이 '나는 교육자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과 결합하면 내 틀 밖에 있는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 번 참아 준다는 태도를 취하다가(학생은 선생님의 이 뜬금없는 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급기야 징벌적 분노를 표출하기 쉽습니다. 이쯤 되면 교육자라기보다 학생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계속

반론을 내놓으면서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었을 때 인내심에 바닥이 난 나머지 이 아이의 호기심과 창의력은 보지 않고 주의력 결핍/행동 과잉증후군(ADHD) 또는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타인의 정서에 공감력이 없는 정신병리)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실에서 유효한 방법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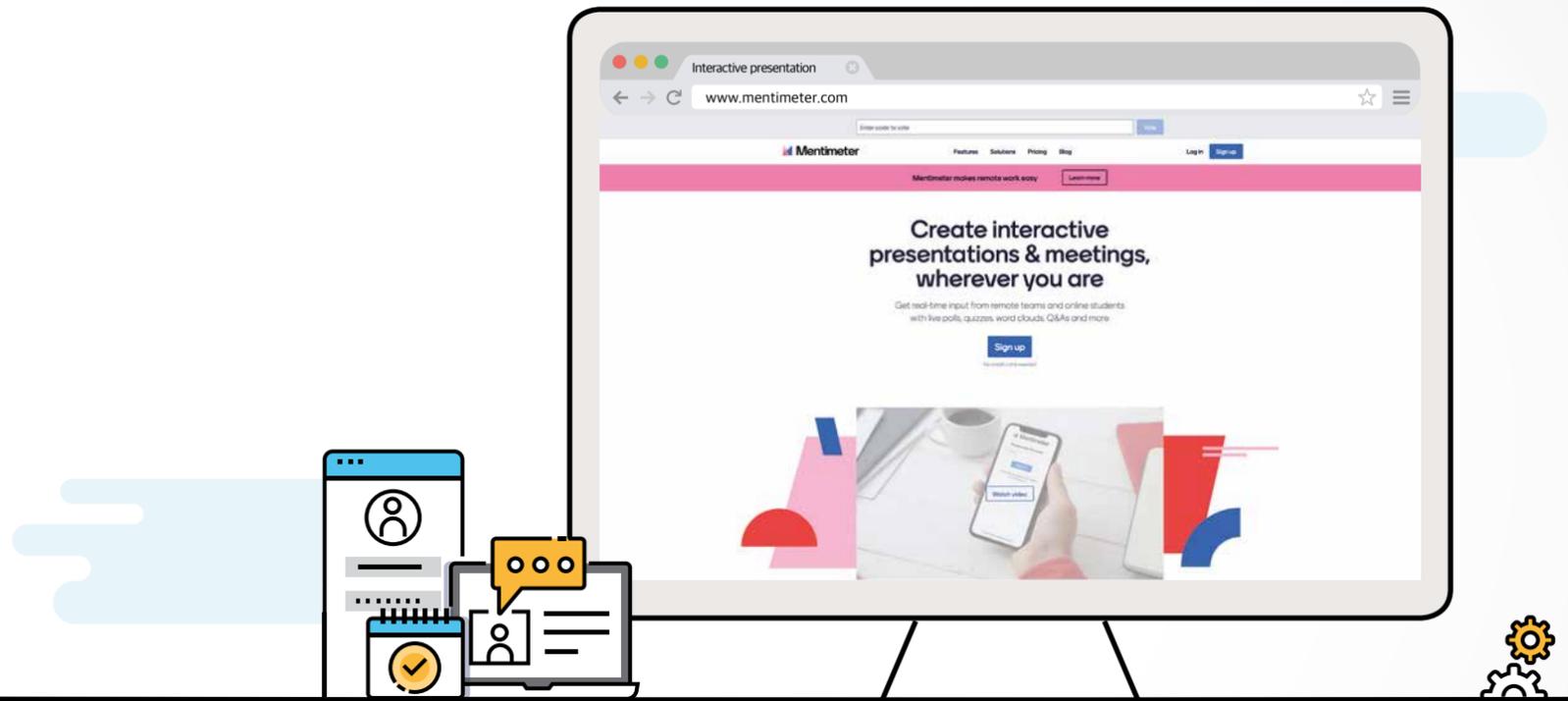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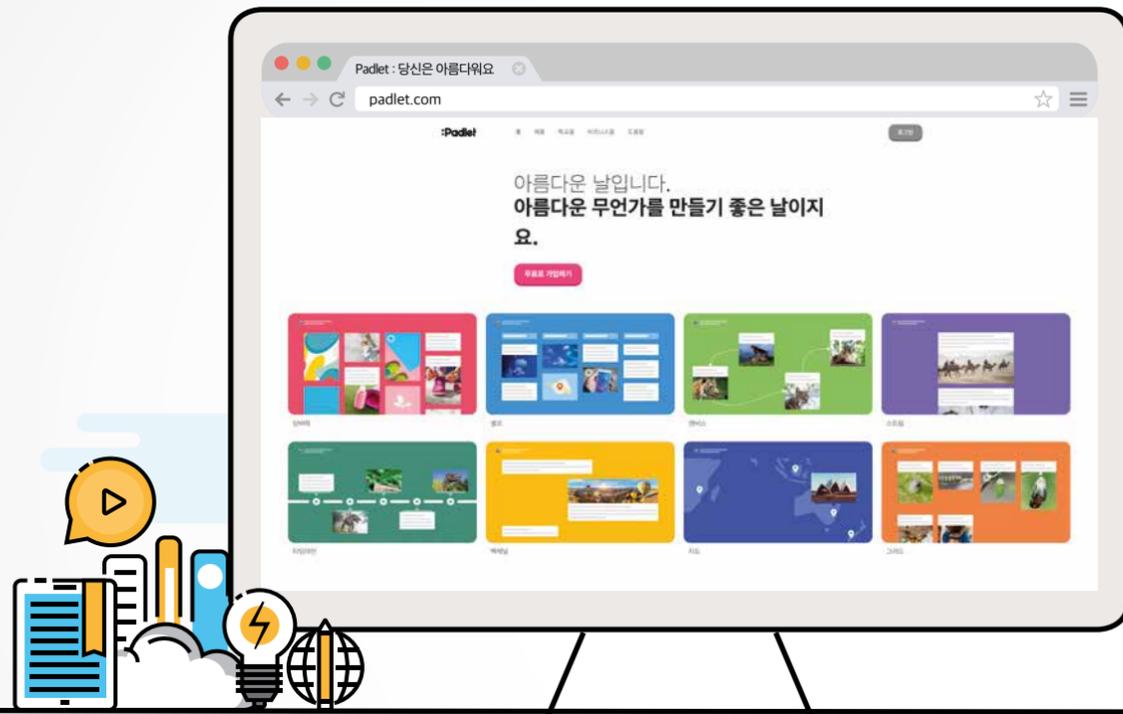
첫째 아이들이 교칙 위반을 포함해서 별의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욕하는 심정으로 짜증을 끌어올리기보다 심호흡 후 '왜 그랬니?'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분노의 급발진을 막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득이 벌을 주셔야겠다고 판단된다면 원래 생각했던 벌을 반으로 줄이고, 거기서 다시 반을 줄이면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알맞은 정도가 됩니다.

둘째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중 잠자거나 떠들면서 방해할 때, 교권을 침해할 때, 교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때, 학생에게 화를 내고 개인적인 벌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자세로 다뤄야 할 처벌을 사적 보복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칙을 어겼을 때는 공식적이고 비감정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선생님에겐 감정 소모를 막고, 학생에겐 올바른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학생지도법을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무엇을 고쳐야 하나?'를 교무수첩에 기록하고 자주 자신을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화나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고함지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욕박지르는 등 불안정한 감정을 자주 표출하는 편인가? 나는 말 안 듣는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가운 분노로 방치하는 습관이 있는가? 나는 여러 학생을 개별적으로 돌보기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한 학생을 시범적으로 크게 혼내는가? 자신에게 이런 방식이 있다면 밝혀내고,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사학습공동체나 토론회를 통해서 '화내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을 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분노는 명상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개선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실천적 연습을 통해서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②

원격수업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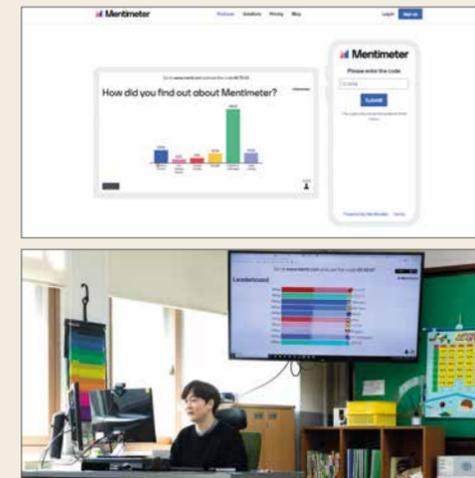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 달리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수업 구성에 많은 제약이 생기죠. 특히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기 힘들고, 다양한 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원격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데요. 원격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우며 수업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패들렛(Padlet) padlet.com

게시판, 블로그, 포트폴리오 기능을 모두 가진 온라인 공유 협업 플랫폼

수업 담벼락 게시판이라 불리는 패들렛에서는 어떤 형태의 자료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자유롭게 문서, 그림, 영상, 음성, 유튜브 링크 등 다양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마치 게시판에 메모지를 붙여놓듯이, 참여자들이 별도의 계정 없이 접속해 쉽게 올리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수업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거나, 모듈별 과제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멘티미터(Mentimeter) www.mentimeter.com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돕는 실시간 소통 도구

멘티미터는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사가 먼저 멘티미터 사이트에 접속해 설문이나 퀴즈를 만들면, 학생은 회원가입 없이 접속 코드를 입력 후 참여할 수 있어요. 주관식이나 객관식 문제를 만들 수 있고, 투표도 가능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시간 퀴즈를 진행한다면 유용하겠죠? 참여 학생별 정답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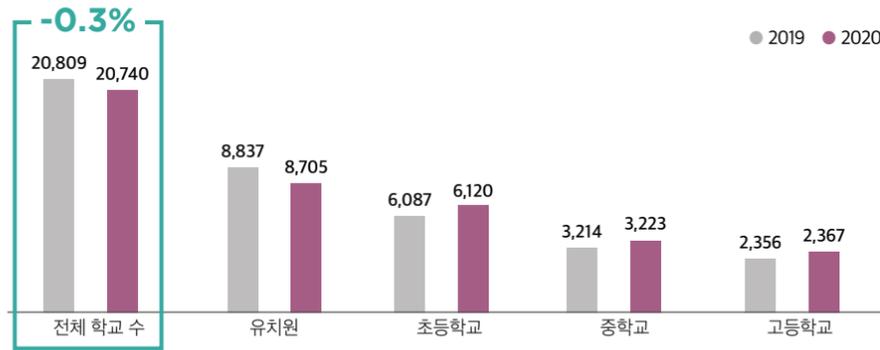
2020 교육기본통계

유·초·중등 교육통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0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 등 23,703개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유·초·중등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는 601만 14명으로 전년 대비 2.1%(126,780명)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은 전년 대비 1.6%(21,287명) 증가하였다.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는 2만 740교로 전년 대비 69개교가 감소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8,705개원으로 132곳이 줄었다. 유·초·중·고 교원 수는 49만 8,281명으로 전년 대비 1,777명이 증가하였다. 유·초·중학교 및 기타학교는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1,023명 감소하였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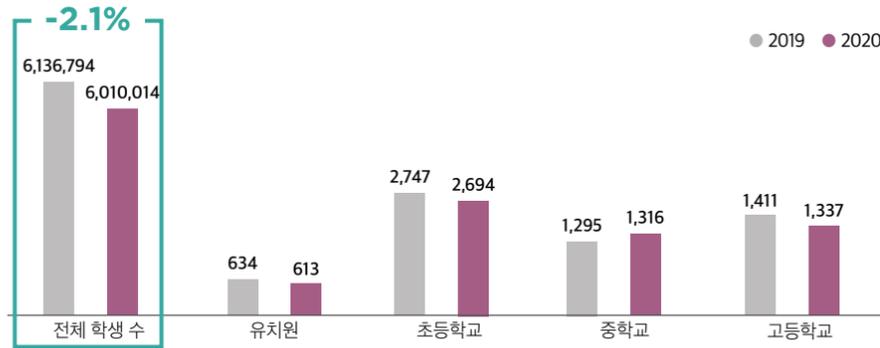
01

학교 수
(단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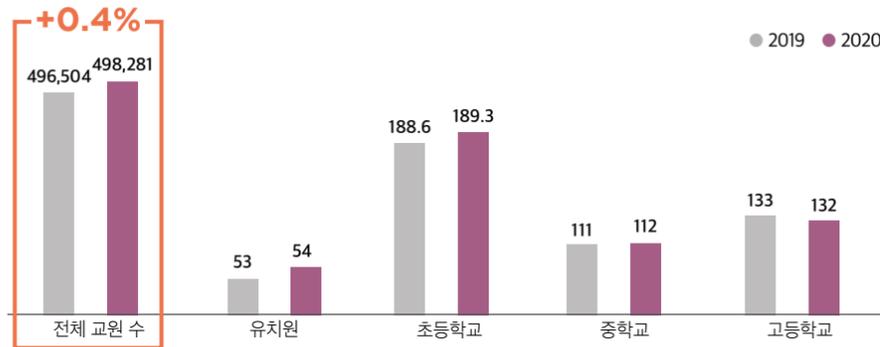
02

학생 수
(단위: 천명)



03

교원 수
(단위: 천명)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2020년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수기·UCC 공모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및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한 학생 사례를 모집합니다.



공모기간

2020년 9월 14일(월)~2020년 11월 13일(금)

공모주제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및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한 학생 사례

참여대상

학 교 초·중·고교 중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외 부 교육기관 초·중·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역사회 기관 업무 담당자

학 생 전국 초·중·고 학생 중 '20년도에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 교실에 참여한 후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학교	학업중단 숙려제(수기) 학교 내 대안교실(UCC)
외부 교육기관(수기)	각 부문별 최우수상 상장 및 8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상 상장 및 50만원 상당의 부상 장려상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부상 입상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부상
학생(수기)	

공모양식

수기 [학교]

-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한 사례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사례 등을 자유롭게 서술
- A4용지 5페이지 이내

[외부 교육기관]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상 프로그램 중 학업중단을 예방한 사례를 자유롭게 서술
- A4용지 5페이지 이내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자유롭게 서술
- A4용지 3페이지 이내

UCC

- 학교 내 대안교실과 관련한 학업중단 위기 극복 사례
- 다양한 소재(인형, 스키치북, 클레이, 모래 등)를 활용한 영상가능
- 작품규격은 mp4, avi, wmv형식, HD사이즈(1280x720픽셀) 5분 내외
- UCC 제작에 사용된 음악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시 수상에서 제외
- 음원 사용 시 UCC 엔딩 크레딧에 출처 명시

수상자발표

2020년 12월 초(예정)

시상식

2020년 12월 말(예정)